

선미 “좀비와 총격전…액션 트레이닝도 받았죠”

3년만에 새 미니앨범 ‘1/6’ 발매

영화같은 뮤직비디오 눈길

“가볍고 자유로운 모습 담아”

하이틴 영화 세트장 같은 DVD 가게에서 가수 선미(사진)가 좀비들과 총격전을 벌인다. 능숙한 몸놀림으로 좀비들을 조준해 총알을 날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선미가 3년 만에 발매하는 새 미니앨범 ‘1/6(6분의 1)’ 타이틀곡 ‘유 캔트 시트 위드 어스’(You can't sit with us) 뮤직비디오 속 장면이다.

“제가 그동안 선보였던 음악들의 연장선에서 좀 더 발랄하고, 경쾌하고, 가볍지만 ‘선미다운’ 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비 때와 난투극을 벌이는 선미가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선미는 최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무술감독님의 멋진 지도와 좀비 연기자들의 열연”에 공을 돌리며 “제가 ‘뺑’ 쏘면 정말 멋있게 날아가 주셔서 덕분에 멋진 액션 시퀀스가 완성됐다. 재미있는 도전이었다”며 웃었다.

좀비들과의 총격전은 드라마 ‘킹덤’ 등에서 열연한 무술팀 ‘본스틴트’와 함께 꾸렸다. 선미도 실제로 액션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촬영을 준비했다. 그는 “짧은 신이었는데 체력이 진짜 많이 필요하더라”며 “처음 해보는 액션이었는데 힘든 것보다 즐거운 마음이 컸다”고 전했다.

2000년대 초반 분위기를 시각적 모티프로 삼았다는 뮤직비디오에는 발랄하고 어딘가 키치한 분위기가 담겼고 비트도 145 bpm으로 빠르다. 미니 2집 ‘워닝’ 이후 다양한 곡을 통해 내면을 솔직하게 풀어냈던 그가 조금은 무게감을 덜어낸 듯하다.

이번 앨범 전체 제목이자 수록곡 제목이기도 한 ‘1/6’은 “중력이 6분의 1인 달에서는 마음의 무게도 6분의 1로 가벼워질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선미는 “지난번 작품 ‘꼬리’로 강한 인상을 줬다면 이번에는 좀 더 가볍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무기력하고 지친 사람들이 이 앨범의 곡을 듣고 조금이나마 신나고 위로



이 울컥했죠.” 신보 발매와 함께 메타버스와 XR(확장현실)을 접목한 컴백 쇼를 여는 것도 눈길을 끈다. 최근에는 아바타 앱 제페토에서 프로모션을 펼치기도 했다. 선미는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XR을 통한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꼽았다. 2007년 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한 선미는 데뷔 15년 차, 솔로 가수로 나선 지는 어느덧 9년 차가 됐다. ‘가시나’, ‘날라라’, ‘사이렌’, ‘보라빛 밤’ 등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녹여낸 독창적 음악으로 ‘선미팝’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그는 후배 여성 솔로가수들의 롤모델로도 꼽힌다. 선미는 “여전히 저를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자신을 롤모델로 삼는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건넸다. “음악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 콘셉트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자신감이 생기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JTBC 오디션 ‘심어게인’에 주니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엠넷 ‘걸스플래닛999: 소녀대전’에 K팝 마스터로 나서는 등 보폭을 넓혔다. 멘토 혹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묻자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나이와 경험을 떠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고 했다. 올해 한국 나이 서른이 된 선미는 지난 2월 ‘꼬리’와 ‘꽃갈래’가 수록된 싱글 발매 당시 “제 30대 행보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직접 경험한 서른은 어떨까. 그는 “별다른 제감이 안 돼서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웃으며 “아직도 어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훈아로 히트한 KBS 을 추석엔 심수봉 단독 쇼

지난해 나훈아 콘서트로 신드롬을 일으킨 KBS가 올 추석에는 심수봉(사진) 단독 공연을 준비했다.

KBS 2TV는 올 추석 ‘2021 한가위 대기환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을 방송한다고 6일 밝혔다.

제작진은 “심수봉이 고난 속에서도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잘 해 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응원과 희망의 선물을 건넨다”며 “다가오는 국민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심수봉이 특별한 언택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수봉은 ‘백만 송이 장미’, ‘사랑밖엔 난 몰라’, ‘그때 그 사랑’, ‘남자는 배 여자는 향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국민에게 사랑받아온 가수이기에 26년 만의 첫 TV 단독 쇼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KBS 측은 “심수봉이 KBS 제작진과 의기투합, 가슴을 울리는 파스란 목소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무더위에 지친 전 국민에게 태극전사의 감동을 잇는 금빛 미소를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연경에서 지소연까지... 스포츠 판도 바꾼 여성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국가대표’ 12일 방송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운동, 그 선입견에 맞서 싸우며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여성 국가대표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다.

KBS 1TV ‘다큐 인사이트’는 오는 12일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국가대표’에서 김연경, 김은아, 남현희, 박세리, 정유인, 지소연 등 여성 국가대표 6명이 한계를 극복해 온 과정을 담는다고 5일 밝혔다. ‘다큐인사이트’가 ‘다큐멘터리 개그우먼’, ‘다큐멘터리 윤여정’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여성 아카이브 시리즈다.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은 2005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17년간 스포츠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허심탄회

하게 털어놓는다. 남자배구의 인기로 가려져 텅 빈 경기장에서 시합을 벌이던 그는 모든 국민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에 주목하게 했다.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여자배구의 새 역사를 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 여자축구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리그에 진출해 명문 구단 첼시FC워민의 에이스로 활약 중인 지소연은 여자축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는 데 일조해왔다.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 한국 최연소 A매치 데뷔, 최연소 A매치 득점, A매치 최다 골을 기록한 그는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세리는 선수 시절 한국을 골프 불모지에서 골프 강국으로 만들어냈고,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의 성별 상급 격차를 역전시켜냈다. 감독이 된 지금은 최초 올림픽 2회 연속 여성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으며, 남성 스포츠인에게 쏟린 애능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다큐멘터리 국가대표’에는 핸드볼계 에이스 김은아, 대한민국 최초 여자 펜싱 메달리스트 남현희, 근육질 몸의 당당함을 드러낸 수영 선수 정유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담겼다. 12일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

연우진, ‘서른, 아홉’ 합류 손예진과 로맨스 호흡

JTBC 새 드라마 ‘서른, 아홉’ 측은 배우 연우진(사진), 이무생, 이태환이 작품에 합류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른, 아홉’은 39살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로맨스 드라마로 손예진, 전미도, 김지현이 출연한다.

연우진은 차미조(손예진 분)에게 빠져든 다정다감한 성격의 피부과 의사 김선우 역을 맡아 연기한다.

이무생은 정찬영(전미도)에게 첫눈에 반한 연예기획사 대표 김진석 역을 연기할 예정이며, 이태환은 레스토랑 사장 겸 셰프인 박현준 역을 맡아 단골손님 장주희(김지현)와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드라마 ‘남자친구’, 영화 ‘82년생 김지영’·‘7번방의 선물’ 등을 집필한 유영아 작가와 드라마 ‘런 온’의 김상호 PD가 의기투합한 이 작품은 내년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